

여수 · 광양항 선박 통항분리항로 설정

대형선박 통항증가로 항로표지 설치

여수 ·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하반기부터 여수해만에 입출항 통항분리 항로가 설정된다. 여수 · 광양항 입구는 유조선 등 위험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입출항이 잦아 입출항 선박간 충돌 등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1988년부터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 · 운영돼왔다.

하지만 그동안 이 지역의 석유 · 화학 · 제철산업의 확장으로 선박 통항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광양항에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가 개발중이어서 대형 컨테이너선의 통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의 항로체계로는 안전한 입출항이 어려운 실정이다.

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실시한 전문기관

의 정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여수해만의 출입항로를 육상도로의 차선 개념과 유사하게 3개 항로로 구분해 양쪽 바깥항로는 일반 소형선박이, 가운데 항로는 길이 200미터 이상의 대형선이 통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또 항로를 가로 질러가는 선박이나 정박지에서 항로로 들어오는 선박을 위해 항로 중간에 도로의 횡단보도와 유사한 주의해역을 설정해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해양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에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항로 주변에 항로를 표시하기 위한 등부표 등 항로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.

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 강화 논의

추아 피아엔g PEMSEA 사무국장 방문

동아시아해역환경관리협력기구(PEMSEA) 추아 피아엔g(Chua, Phia-eng) 사무국장이 PEMSEA와 해양수산부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,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동아시아 해양환경 관리방안 등을 협의했다.

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동아시아해역 지속가능개발전략(SDS-SEA)의 실행방안과 해역관리에 관한 북한과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.

PEMSEA는 황해, 중국해 등 동아시아 6개 해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해역관리 협력기구로서 특

히 북한이 참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. 북한의 남포항은 PEMSEA로부터 시범해역으로 지정돼 재정 · 기술 · 관리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받고 있다. 이번에 방문한 추아 사무국장은 연안관리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권위자로 북한, 중국 등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 걸쳐 풍부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.

PEMSEA와 해양부는 지난 2001년 시화호를 비교해역으로 지정해 해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. 또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, 전문가 교류, 국제회의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.